

黃海 中部 섬 지역의 新石器遺蹟 現況

金碩勳 (인하대)

1. 머리말

간석기와 토기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우리 나라 신석기 문화의 흔적은 강가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위치한다.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기만 북부 및 주변 섬 지역은 어·패류의 식량자원이 풍부하며, 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해안 지형을 이루고 있어 신석기 유적이 많이 찾아지고 있다.

황해 중부 섬 지역에¹⁾ 대한 선사유적의 관심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된다. 이 당시의 조사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다른 섬 지역 보다 조사하기가 용이하였다는 지역적 이점도 있었지만, 유물 중심의 단순한 好古主義적 초기 관심을 벗어나 경기만 지역의 답사는 고고학적 관심의 표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. 근래에 들어 점차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개발의 붐이 섬 지역까지 미침에 따라 학문적 성숙과 지역의 관심도가 일정부분 공유되어 고고학적 조사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, 그 결과 공백지대로 남아 있던 황해안의 신석기 문화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.

지금까지 강화도를 비롯한 경기만 일대와 충남 해역의 섬들에서 밝혀진 신석기 유적은 최소한 130 유적²⁾ 이상 되며, 확인된 섬들은 경기만의 백령도를 비롯해 대연평도·소연평도·우도·석모도·강화도·주문도·장봉도·모도·시도·신도·무의도·용유도·삼목도·영종도·월미도·작약도·오이도·영흥도·대부도·제부도·선재도·덕적도·소야도·문갑도·굴업도·백야도·올도·승봉도·자월도·대이작도 등이 있고, 충남 해역의 원산도·외연도·초락도·웅도·난지도·송도·안면도 등 최

1) 황해 중부 섬 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일대를 중심으로 경기도·충청남도에 소속된 섬을 말하며, 수리적 위치로는 북위 36°~38° 선에 이르는 지역에 해당한다.

2) 여기서 제시된 유적 수는 최소치이며, 한 유적 안에 2~3곳의 작은 유적이 포함되어 있거나, 한 섬안에 몇 유적이 있는 경우도 있다. 더욱이 신석기의 조개더미로 추정되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유적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실시되면 실제 유적은 많이 증가할 것이다.

소한 38섬에 이른다. 더욱이 前人未踏의 섬 지역을 고려해 보면 유적 수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.

따라서 섬의 위치상 신석기 유적은 횡적으로 내해에서 외해, 종적으로는 백령도부터 충남해역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.

황해 섬 지역의 조사 현황 파악은 신석기 시대 중서부 문화권 규명은 물론 한반도 선사문화 흐름 파악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, 앞으로 섬 지역 조사의 중요성은 물론 섬 개발에 따른 고고학적 유적 보존을 위한 기본적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이다.

본 글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조사현황을 각 시기별로 기능하고, 그 결과 나타난 조사내용을 통하여 황해 중부 섬 지역 신석기 유적의 대략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. 시기구분은 조사현황인 만큼 지표·발굴조사의 빈도 및 조사 여건을 기준으로 나누었다.

2. 조사현황

1) 태동기 (1910~1945년)

이 시기는 고고학적 조사 현황 측면에서 초창기에 해당하며, 日人 및 朝鮮總督府를 중심으로 수습적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.

유적을 살펴보면 경기만의 경우 강화도 사기리(분오리)·동막리 유적(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), 시도(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) 유적을 들 수 있다.

사기리 유적은 1914년 和田雄治가 채석장에서 돌도끼 2점을 획득하고, 이 일대의 시굴조사를 통해 토기를 찾으면서 비롯된다.³⁾ 그 후 和田勝彦의 추가조사에 의해 갈판·타제 돌그물추·돌도끼·여러 조각의 토기가 찾아지는데⁴⁾, 이 유적이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.

사기리 유적과 인접한 동막리 유적은 1916년 朝鮮總督府 博物館 주관으로 鳥居龍藏에 의해 토기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문양 탁본과 함께 有光教⁵⁾이 소개하고 있으며, 시도(‘箭島’라 표기)에서도 조개 더미에서 토기를 찾았음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.⁶⁾

이처럼 조사(자)는 1910년대 개인 혹은 조선총독부 주관 하에 鳥居龍藏(당시 東京大 강사)에 의해 이

3) 和田雄治, 1914. 「朝鮮の先史時代遺物に就て」 『考古學雜誌』 4-5, 36~37.

4) 和田雄治, 1914. 「江華島の石器時代遺物」 『人類學雜誌』 9-10.

5) 有光教一, 1962. 「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」, 18~19(京都大學 出版部).

6) 朝鮮總督府, 1916. 「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」, 228~38.